

[현안리포트 05-037]

한-캐나다 FTA 체결시 우리 수출에의 영향

2005. 11

통상전략팀

<요 약>

- 한-캐나다 FTA 통한 수출품목 다변화와 시장점유율 회복 필요
 - 한국의 대캐나다 수출의 특정 품목 편중현상 여전
 - 2005년 상반기 한국 상품의 캐나다 시장 점유율 하락(1.6%→1.4%)
 - 캐나다의 해외투자대상국 다변화 추세 활용하는 것이 필요

- 한-캐나다 FTA 체결시 주요 수출품목의 시장 및 경쟁여건에는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캐나다의 한국 주요 수출품목에 대해 무관세 또는 저관세를 운영하고 있어 관세인하에 따른 효과가 매우 미미할 전망
 - 단, 북미시장에서 중국과 멕시코와 가격 경쟁을 하고 있는 저가의 중소기업 품목의 경우 수출 판로 확대의 주요 수혜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특히 품질에서는 우수하나 중국과 가격경쟁을 하고 있는 일부 품목(자동차 부품, 철강, 산업용 인쇄종이 등)의 경우 캐나다 바이어들이 수입선을 한국산으로 전환하거나 수입물량을 증대할 것으로 예상됨

- 한-캐 FTA에 따른 가격하락에 대한 막연한 기대보다는 선진 시장에서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
 - 한국의 대캐나다 주요 수출품목의 대부분은 무관세 혹은 저관세를 적용받고 있어 이들 품목에 대한 FTA의 관세인하 효과는 미미할 듯
 - 품목과 시장을 세분화하여 여전히 가격이 중요한 구매 의사결정 기준을 차지하고 있는 품목의 관세인하가 협상의 관건

- 비관세장벽과 관련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 채널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선진 서비스 시장과의 교역 확대를 통한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여부가 협상 타결의 관건이 될 전망

<목 차>

I. 한-캐나다 최근 교역 동향	1
II. 한-캐나다 FTA 협상 개요	4
III. 한국의 對캐나다 수출에 미치는 영향	9
1. 조사개요	9
2. 주요품목의 수출시장 여건변화	10
가. 한-캐 FTA 체결시 우리제품의 경쟁력 변화	10
나. 주재국 주요 바이어 동향	26
3. 캐나다의 비관세 장벽 현황 및 피해사례	30
가. 캐나다의 비관세 장벽 현황 및 특징	30
나. 비관세장벽 관련 피해사례 및 개선 요구사항	37
IV. 시사점	40

I. 한-캐나다 최근 교역동향

□ 교역 동향

- 2004년 한국의 대캐나다 수출액은 33억 8300만달러로 우리나라의 제13위 수출시장이며, 수입액은 21억 8800만달러로 23번째 수입시장(한국은 캐나다의 제8위 수출시장이며 제7위의 수입시장)
- 1963년 국교를 맺은 이래 한국과 캐나다간의 교역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여 2004년말 기준 55억 7100만달러로 연평균 10% 이상씩 성장 → FTA 체결에 따라 각종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철폐될 경우 수출의 꾸준한 성장세 가속화 가능

【연도별 한국의 대캐나다 수출】

(단위:US\$)

	수출실적	증가율(%)
1990	17억 3천만	-8.0
1995	17억 9천만	28.8
2000	24억 3천만	48.1
2001	20억 4천만	-16.1
2002	23억 4천만	15.0
2003	26억 8천만	14.6
2004	33억 8천만	26.1
2005. 1~8	22억 3천만	12.1

주: 2005. 1-8 수출실적의 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자료원 : KOTIS, 2005. 9 현재)

○ 한국의 대캐나다 수출, 특정 품목 편중현상 여전

- 2004년 기준 한국의 대캐나다 수출품목 중 상위 3개 품목인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선박해양 구조물 및 부품인 바, 이들 품목이 총수출의 50% 초과 → FTA를 통한 수출상품 다변화 추진 필요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 변화 추이】

(단위: US\$)

	연도별 3대 수출품목			총수출액	3대 품목비중
1990	의류	자동차	신발	17억3천만	42.9%
1995	레일 및 철구조물	컴퓨터	반도체	17억9천만	40.9%
2000	자동차	의류	무선통신기기	24억3천만	33.1%
2001	자동차	의류	무선통신기기	20억4천만	45.8%
2002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의류	23억8천만	48.7%
2003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26억천만	52.4%
2004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선박해양구조 물/부품	33억8천만	52.2%
2005. 1-8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고무제품	22억3천만	51.2%

○ 2005년 상반기 한국 상품의 캐나다 시장점유율 하락

- 캐나다 전체 수입은 2004년중 전년비 12.0% 증가(US\$기준)한데 이어, 2005년 상반기 중에서 16.2% 증가하는 호조세
- 그러나 캐나다의 대한국 수입은 2005년 상반기중 불과 1.0%만 증가해 한국 상품의 캐나다 수입시장 점유율이 2004년 1.6%에서 1.4%로 하락, 8대 수입상대국으로 하락함(2004년 7대 수입상대국)

【주요 국가의 캐나다 시장점유율 변화】

(단위: US\$, %)

	2000	2004	2005 상반기		점유율		
			금액	증가율	2000	2004	2005상반기
총수입	240,363	273,182	153,259	16.2	100.0	100.0	100.0
미국	154,630	160,539	89,193	12.0	64.3	58.8	58.2
중국	7,604	18,515	10,545	35.7	3.2	6.8	6.9
일본	11,185	10,272	6,000	18.7	4.7	3.8	3.9
멕시코	8,120	10,302	5,712	14.6	3.4	3.8	3.7
독일	5,234	7,233	4,248	23.2	2.2	2.6	2.8
영국	8,772	7,420	4,166	20.0	3.6	2.7	2.7
노르웨이	2,940	3,809	2,692	66.5	1.2	1.4	1.8
한국	3,556	4,475	2,195	1.0	1.5	1.6	1.4

□ 투자 동향

○ 캐나다의 저조한 對韓 해외투자실적

- 2004년 기준 캐나다의 대한 직접 투자액은 총 6억 8,600만 캐나다 달러로 31위의 투자 대상 국가이며, 우리나라 대 캐나다 달러로 23위의 투자국가임(자료원 : Industry Canada)

※ 일본의 95억7600만달러, 싱가포르의 37억9000만달러, 홍콩의 28억 9900만 캐나다달러에 비해 저조한 성적임

○ 최근 미국과 EU 회원국 치중에서 탈피, 점진적으로 해외투자대상국의 다변화 진행

- 캐나다의 해외투자대상국 중 미국과 EU 회원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3.6%와 27%이나(2004년 기준), 지난 15년간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카리브해 국가의 비중이 점차적으로 증대함

※ 아시아-태평양 지역 : 7%('89) → 8%('04)

※ 카리브해 지역 : 6%('89) → 14%('04)

- FTA 체결국가로의 해외투자 확대의 가능성(예: 코스타리카, 멕시코 등)

I. 한-캐나다 FTA 협상 개요

□ 협상 진행 경과

- 2004년 11월 칠레 APEC 정상회의 시 양국간 FTA 협상 논의 본격화
- 2005년 1월과 3월 예비협상, 6월 한-캐나다 통상장관 회담을 거쳐 지난 7월 WTO 소규모각료회의에서 양국간 FTA 협상 공식개시 합의
- 2005년 7월 15일 공식 협상 출범
 - 7월 28일 서울에서 1차 협상(서울) 개최하고 향후 협상방향에 대해 논의한 바 있으며 9월 27~30일에는 2차 협상(서울) 완료
 - 1차 협상에서는 협상 방식(modality)과 협상 분과 구성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동 협상에서 합의된 형태로 2차 협상 진행
- 2005년 11월 부산 APEC 정상회의에서 폴 마틴 캐나다 총리의 한국 방문시 협상의 큰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전망됨
- 3차 협상은 11월28일부터 12월2일까지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될 예정

□ 협상의 의의

- 상호보완적 교역구조로 인한 국내산업의 구조조정 비용 최소화
- 한국과 캐나다 양국의 교역구조를 보면 한국은 공산품을 수출하고, 캐나다로부터 1차 산품과 항공기 및 부품 등 하이테크 상품을 수입하는 상호보완적인 형태를 갖고 있는바, 한-캐 FTA 체결은

서로의 시장 잠식 우려 없이 양국간 교역을 확대 발전시키는 계기로 작용 전망

- 한국은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고무제품 등 공산품 수출, 캐나다는 제지원료, 석탄, 유기화학품, 니켈 등 기초 원자재 수출
- NAFTA 역내 국가간 실행 관세율은 0.5%로서 대한국 실행관세율 4.1%(2004)에 비해 현저히 낮고 양국간 경합품목이 적어 주력수출품목이 서로의 시장잠식 우려 없이 교역 확대 가능
- 한국과 캐나다 양국의 교역구조를 보면 한국은 공산품을 수출하고, 캐나다로부터 1차 산품과 항공기 및 부품 등 하이테크 상품을 수입하는 상호보완적인 형태를 갖고 있는바, 한-캐 FTA 체결은 서로의 시장 잠식 우려 없이 양국간 교역을 확대 발전시키는 계기로 작용 전망
- * 이는 2004년도에 양국 기업을 대상으로 기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주재 상사 및 교민 기업을 포함한 양국 기업의 84.6%가 한-캐 FTA 체결이 양국간 무역 및 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응답

○ 북미시장으로의 안정적인 진출 교두보 마련

- NAFTA 체결에 따른 무역전환효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섬유 및 컴퓨터 주변기기의 시장점유율 회복 기대
- 한-캐 FTA는 단순히 양국간의 원활한 무역·투자를 위한 협상을 넘어 캐나다 내수 시장 뿐 아니라 인구 4억2500만, GDP 규모 12조 650억 달러, 수입규모 1조6,640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 시장인 NAFTA 역내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음

* 2004년 기준 우리나라의 對 NAFTA수출은 약 492억불(중국 : 약497억불)을 기록, NAFTA는 우리나라 총 수출의 20.3%를 차지하는 한국 상품의 최대 소비 시장임

- 특히, 캐나다는 미국을 제외한 FTA 협정국들로부터의 수입이 FTA 협정 발효 이후 연평균 수입증가율보다 훨씬 상회하는 평균 2~5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캐나다의 대FTA 체결국 수입동향】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FTA발효 전년도 수입액	2004년 수입액	FTA발효 후 2004년까지 연평균 수입 증가율	동기간 중 캐나다 연평균 수입증가율	2005년 상반기 수입증가율
미국(1994)	88,265	160,477	5.6	6.8	12.0
멕시코(1994)	2,876	10,299	12.3	6.8	14.6
칠레(1997)	251	1,005	18.9	4.8	41.4
이스라엘 (1997)	196	535	13.4	4.8	20.7
코스타리카 (2001)	123	243	18.6	3.2	17.3

주: ()안은 FTA 발효연도

(자료원 : 캐나다 산업부, Trade Data Online, KOTRA 벤쿠버 무역관)

○ 안정적인 자원 확보

- 우라늄, 니켈, 아연, 금, 구리 등 60개 이상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매장량 가지고 있으며, 한국은 제지원료, 석탄, 알루미늄, 구리, 우라늄 등의 1차 상품을 캐나다로부터 중점적으로 수입
-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2위의 원유매장 국가이며, 세계 7위의 원유생산국임

- 오늘날과 같이 기초 원자재 확보가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한-캐 FTA를 통해 캐나다의 풍부한 산림 자원 및 광물 자원을 보다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공급 받음으로써 우리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임
-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계기 마련
- 선진 서비스 시장과의 교역확대를 통해 우리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 기회 제공
- 캐나다 전국지인 National Post에서 발행하는 비즈니스 매거진이 발표한 캐나다 500대 기업(2004년 매출액 기준) 중 10위권에 Menulife Financial, 로, Sun Life 등 다수의 금융 서비스 기업이 차지하고 있음

□ 캐나다의 FTA 추진 동향 및 특징

- 최근 NAFTA 체결이후(1992) 적극적으로 FTA 추진
 -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지나친 대미 의존도를 탈피하고자 함
 - 현재 미국과 멕시코(NAFTA), 칠레, 이스라엘, 코스타리카 5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어 있으며 현재 중미 4개국, 싱가포르, EFTA 등의 국가들과 FTA 협상을 진행중
- 2005년 4월 캐나다 정부가 발간한 '대외정책보고서'
 - 한국 및 싱가포르와의 FTA를 적극 추진하고, 중국 및 인도 등 BRICs와의 교역환경을 개선하며 일본과는 '새로운 경제협력 체계(new economic framework)'를 모색하는 등 아시아 국가와 적극적인 양자 차원의 협력을 추진할 것임을 천명
 -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으로의 진출 확대를 위한 '전략적 게이트

웨이(Strategic Gateway)의 역할을 기대하며 한국과의 FTA 체결은 캐나다의 통상정책의 우선순위인 '신흥시장 진출확대(Emerging Market Strategy)'의 일부로 분석됨(KOTRA 밴쿠버 무역관)

- 케언즈 그룹의 일원으로서 FTA 협상시 주로 수출국의 입장에서 농산물 수입국에 대한 시장접근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해옴
- 캐나다 정부는 기존의 목재, 농산물, 광물 등 천연자원에 치중한 수출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시아 지역과의 FTA를 추진하고자 함
- 특히, 캐나다 정부는 농림수산업을 포함한 천연자원 개발산업, 기계류 제조업, 금융업을 포함한 각종 서비스업이 주된 수혜자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그 밖에 의료, 교육, 사회복지, 문화사업 등의 분야에서의 성공적인 한국시장 진출을 기대 (KOTRA 밴쿠버 무역관)

【캐나다의 FTA 추진 현황】

기체결	협상중 FTA	검토중 FTA
NAFTA(94 발효) 칠레('97 발효) 이스라엘('97 발효) 코스타리카('01 발효)	FTAA EFTA('98. 10 개시) 싱가포르('01. 10 개시) 중남미 4국* 한국(05. 7 개시)	안데스공동체, 일본, EU, 도미니카공화국

*주: 중남미 4국(Central America Four :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자료원 : 대한상공회의소, KIET, KOTRA 자료 참조)

III. 한국의 對캐나다 수출에 미치는 영향

1. 조사 개요

□ 동 조사는 우리의 8대 주요 수출품목을 대상으로 한-캐나다 FTA 체결이 캐나다 시장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에 대해 조사

○ 캐나다 진출업체 및 주요 바이어에 대한 의견조사, 시장조사, 무역관 보유자료 등을 기초로 현지 조사

○ 캐나다 시장의 비관세 장벽 현황 및 특징을 업데이트하고 비관세 장벽 관련 업계의 피해사례 및 개선 요구사항을 조사

□ 조사 품목의 선정

○ 한국의 對캐나다 수출액 대비 약 60%를 차지하는 8개 품목

- 자동차, 무선전화기, 자동차부품, 타이어, 선박, 아연도 강판, 칼라TV, 철강(MTI 4단위 기준)

【한국의 對캐나다 8대 주요 수출품목】

(단위: 천불, %)

순위	품목코드	품목명	2004년	2005년(1~9월)
1	7411	승용차	1,298,156	2,468,903
2	8121	무선전화기	307,729	882,503
3	7420	자동차부품	78,682	265,027
4	3203	타이어	80,408	71,581
5	7461	선박	133,218	65,695
6	6134	아연도강판	43,194	31,741
7	8211	칼라TV	43,209	30,801
8	6111	철강	48,209	30,177
총수출	-	-	3,383,074	2,468,903

(자료원 :KOTIS, MTI 4단위 기준)

- 동 8개 품목의 FTA 체결시 수출여건의 변화를 현지인지도, 가격 및 품질에 대한 인지도, 경쟁국 대비 비교 등을 기초로 예상

2. 주요품목의 수출시장 여건변화

□ 한-캐나다 FTA 체결시 캐나다 시장에서의 우리제품의 경쟁력 변화(2005. 10. 현재 한국의 對캐나다 8대 주요 수출품목)

1) 자동차

○ 현지인지도

- 과거 소형차 중심의 저품질, 저가 자동차를 생산·판매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중형, SUV 등 다양한 차종을 생산·판매하는 종합메이커로서의 인식이 정착되었음
- 2005. 9월말 현재 한국자동차의 캐나다 시장점유율은 5.9%로 현대자동차는 일본의 닛산과 캐나다내 7대 브랜드 자리를 두고 경쟁중이며, 기아는 BMW를 제치고 10대 브랜드로 부상

○ 가격 및 품질에 대한 인식도

- 종래 한국자동차는 저가, 소형자동차 중심의 싸구려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으나, 최근 한국차의 품질수준의 비약적인 발전과 이를 바탕으로 한 5년 10만km 보증(미국 10년 10만마일 보증)으로 대표되는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캐나다 소비자들의 차 구매시 고려해야 할 대상으로 자리 잡음
- 2004년도 JD파워와 Consumer Report의 품질관리 베스트에서 현대

가 토요타에 이어 2위를 차지한 이후 한국산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캐나다 운전자들이 차량 평가의 지표로 활용하고 있는 캐나다 기자단의 평가 결과에서도 현대 투싼이 크로스오버 분야에서, 기아 스펙트라가 이코노미 부문에서 최우수 차량으로 선정된 이후부터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인지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 경쟁국 대비 비교

- 한국 자동차업체가 최근의 품질향상에 힘입어 북미시장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거두고 있지만, 그동안 향상된 품질에 비하여 아직까지 일본, 독일 등의 자동차업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품질이 떨어진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또한 제품이 과거의 소형차 중심에서 벗어나 많이 다양해 졌으나 여전히 경쟁국가의 자동차업체에 비하여 선택의 폭이 적으며 특히 한국을 대표할만한 럭셔리급의 고급승용차가 아직 없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캐나다 자동차 판매현황】

(단위: 대, %)

Maker	'05. 1~7	'04. 1~7	증감률	시점점유율	
				'05. 1~7	'04. 1~7
총 계	963,340	923,692	4.3	100.0	100.0
GeneralMotors	279,108	259,883	7.4	29.0	28.1
DaimlerChrysler	137,383	133,288	3.1	14.3	14.4
Ford	135,472	135,375	0.1	14.1	14.7
Toyota	98,233	97,010	1.3	10.2	10.5
Honda	74,334	70,236	5.8	7.7	7.6
Mazda	48,887	47,705	2.5	5.1	5.2
현대	38,734	33,818	14.5	4.0	3.7
Nissan	38,094	35,385	7.7	4.0	3.8
Volkswagen	16,980	17,273	-1.7	1.8	1.9
기아	16,576	14,980	10.7	1.7	1.6

자료원 : DesRosiers Automotive Report, 대상기간 : 2005. 1-7월

○ 한-캐 FTA 체결시 영향 예상

- 캐나다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은 6.0 - 6.1%로 경쟁대상국인 일본, 미국, 독일 등이 캐나다 또는 미국의 생산 공장을 통해 무관세로 자동차를 판매해왔던 점에 비추어 캐나다와의 FTA 체결시 해당 관세율만큼의 가격경쟁력을 확보, 상당한 수출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최근 캐나다자동차산업노조(Canadian Auto Workers Union)의 아시아계 브랜드의 캐나다내 판매량 증가에 따라 아시아와의 무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 북미지역 자동차산업 종사자들의 한국산 자동차의 북미시장 진출 확대에 대해 매우 적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 FTA 협상시 난항이 예상되나, 자동차부품업계 일부에서는 FTA체결로 인해 산업간 협력(Intra-Industry Trade)이 강화되어 자동차산업 경쟁력 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음

2) 무선통신기기

○ 현지인지도

- 현재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휴대폰 3대 중 1대가 한국산일 정도로 한국산 휴대폰의 인지도 및 인기가 높으며, 특히 세계적인 IT 상국으로 명성이 높은 한국의 앞선 휴대폰 제조기술이 이미 많은 캐나다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음

○ 가격 및 품질에 대한 인식도

- 한국산 핸드폰의 우수한 성능과 디자인을 바탕으로 한국산이 경쟁국 제품과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음

- 또한 카메라, MP3, 블루투스, 비디오, 라디오 등 첨단기술이 휴대폰에 부가되면서 우수한 첨단성능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는 한국산 휴대폰의 인지도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음

○ 경쟁국 대비 비교

- 한국산 핸드폰의 시장점유율은 2000년 14.3%에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3년 37.1%를 기록한 후 다소 주춤, 2005년 8월 현재 32.2%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음
- 2000년 1.7%에 불과하던 중국산 핸드폰의 수입시장 점유율이 2005년 8월 현재 19.26%에 달해 큰 폭으로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으며, 한편 동 기간 중 미국산 핸드폰의 시장점유율은 2000년의 59.9%에서 2005년 8월 현재 18.1%로 크게 하락하였음
- 한편 일본산 핸드폰의 경우 2000년의 6.2% 이후 가격경쟁력 열세 등의 이유로 점차 감소하여 2004년 0.8%까지 급락하였으나, 최근 MP3폰, 카메라폰 등 고가, 고기능 핸드폰의 인기에 힘입어 2005년 현재 4.9%의 점유율을 회복하였음

【캐나다 핸드폰 수입시장의 동향】

(단위 : US천달러)

국가명	2001	2002	2003	2004	2005.8	증감률(04/05)
한국	174,441	299,046	461,923	521,630	307,522	21.40%
미국	414,363	298,992	266,753	323,069	173,113	-15.20%
중국	63,392	121,661	223,744	291,663	183,980	-5.70%
말레이시아	30,634	30,698	53,474	121,423	62,519	-26.20%
멕시코	85,512	88,744	57,753	72,609	56,581	94.90%
싱가포르	18,602	7,617	22,931	45,697	29,970	79.60%
프랑스	16,211	22,634	18,035	29,065	2,886	-83.60%
대만	2,442	15,218	9,409	19,970	26,382	49.40%
독일	3,390	8,719	26,428	17,185	6,201	-52.80%
일본	70,427	54,186	12,337	11,940	46,647	445.00%
총수입	996,103	1,057,681	1,243,669	1,556,909	955,396	5.00%

자료원 : 캐나다 통계청, HS Code 852520 기준

○ 한-캐 FTA 체결시 영향 예상

- 현재 핸드폰을 포함한 무선통신기기의 경우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어 FTA 체결로 인한 관세철폐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나, 소비자들 사이에서 한국산 핸드폰이 기본 통화기능 외에 카메라, MP3 등 첨단 멀티미디어 기능 면에서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 받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모바일 콘텐츠 사용 증가와 고가/고기능 핸드폰에 대한 수요증가에 힘입어 캐나다 시장에서의 강자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2005년 3월 현재 캐나다 무선이동통신 보급률은 47%로 이는 같은 시기의 미국의 보급률 62%, 유럽의 90%이상의 보급률에 크게 떨어지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 캐나다내 3대 이동통신 업체인 Telus, Bell, Rodgers간 신규가입자 확보경쟁이 점차 가열되어감에 따라 핸드폰 수요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 한국산 핸드폰의 수출 전망을 밝게 하고 있음

3) 자동차 부품

○ 현지인지도

- 종래 캐나다 자동차업계의 미국 자동차 BIG3에 대한 높은 의존도 및 한국산 자동차의 싸구려 인식으로 인해 한국산 자동차부품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은 편이었으나, 최근 한국산 자동차의 품질 및 브랜드 인지도 강화에 힘입어 한국산 자동차부품에 대한 인지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 또한 캐나다 부품업계 1, 2위 업체인 Magna社 와 Linamar社 등의 연이은 대 한국투자(생산공장 설립), GM 등 미국 자동차 Big3의 한국산 자동차부품의 아웃소싱 증가로 인해 업계 내부에서 한국의 앞선 부품 제조 기술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음

○ 가격 및 품질에 대한 인식도

- 캐나다 자동차부품시장은 크게 OEM부품시장과 애프터마켓용 시장으로 나뉘며, 한국산 제품의 경우 주로 범용제품을 취급하는 애프터마켓용 시장에서는 중국이나 대만산 제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이 열세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공조, 트랜스미션 등 자동차메이커 또는 밴더들에게 직접 납품하는 OEM부품시장에서는 가격 대비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특히, 최근 한국산 자동차의 품질 향상에 힘입어 한국산 자동차 부품에 대한 품질 신뢰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음
- 또한 최근 북미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GM, Magna 등 북미 주요 자동차 완성차업체 및 부품업체들은 자동차부품의 자체생산량을 줄이는 한편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아웃소싱을 활발히 전개하는 과정에서 한국산 자동차부품의 가격 대비 우수한 품질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

○ 경쟁국 대비 비교

- 캐나다 자동차부품(OEM부품)에서 한국산은 일본, 독일 등에 비하여 품질은 중상 정도로 평가되며, 가격은 동 국가들에 비하여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OEM부품 시장에서는 중국, 인도의 자동차부품이 잠재적 경쟁자로서의 위협성을 충분하다 인정하면서도 아직은 북미 자동차업체가 요구하는 품질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중론임
- 애프터마켓용 시장에서는 주로 품질보다 가격이 중시되는 관계로 경쟁국가인 대만이나 중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크게 뒤진다는 평을 받음
- Tool/Die 시장에서는 중국산과 비교하여 뛰어난 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중국제품이 한국제품보다 품질면에

서 약 3년 정도 뒤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캐나다 자동차 부품 수입시장의 현황】

(단위 : US천달러)

국가명	2001	2002	2003	2004	2005.8	증감률 (04/05)
미국	18,324,209	19,162,540	19,022,528	20,460,727	13,434,192	-2.6%
일본	758,296	783,382	803,210	862,561	578,610	-0.7%
멕시코	459,130	475,171	562,991	848,362	631,698	14.3%
중국	27,637	32,760	55,428	329,937	287,001	48.1%
독일	123,095	150,087	145,118	219,775	178,684	34.9%
오스트리아	96,243	113,265	149,601	186,704	98,760	-11.1%
재수입 (캐나다)	79,281	66,696	75,628	92,921	82,600	41.4%
대만	58,710	67,716	68,847	90,521	66,512	9.5%
한국	26,834	34,958	40,365	72,967	62,157	34.8%
이탈리아	45,657	41,284	60,224	72,255	57,485	17.0%
총수입	20,217,718	21,151,312	21,226,029	23,508,689	15,699,144	-0.3%

자료원 : 캐나다 통계청, NAICS 326193,336319, 336350,336370, 336390 기준

○ 한-캐 FTA 체결시 영향 예상

- 캐나다는 한국산 자동차부품에 대하여 6%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향후 FTA 체결시 관세철폐로 인해 수출확대가 기대됨
- 최근의 캐나다화 급등현상으로 캐나다 자동차 메이커들이 해외 아웃소싱을 늘리고 있으며, 또한 캐나다 부품업체 1, 2위의 제조업체들이 연달아 한국에 제조시설을 설립함에 따라 한국의 앞선 부품 제조업에 대한 캐나다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향후 수출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최근 한국산 자동차의 판매가 지속적으로 호조를 나타냄에 따라 이들 차량을 대상으로 한 애프터마켓 부품의 수요가 꾸준히 이어질 전망됨

- 그러나 캐나다 부품업체들의 대형 고객인 미국 빅3의 잇따른 경영난으로 인한 납품규모 축소와 가격인하 압력 등의 영향으로 캐나다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생산규모 축소, 대규모 Lay-off 등)이 향후 한국산의 수출증가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

4) 선박

○ 현지인지도

- 세계 조선시장 시장점유율 1위가 말해주듯 한국산 선박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높으며, 대부분의 업체가 한국의 조선업체와의 거래 또는 거래경험을 가지고 있음

○ 가격 및 품질에 대한 인식도

- 한국은 경쟁국인 일본에 비하여 일찌감치 LNG/LPG 운반선, FPSO 등 고부가가치선에 힘을 기울인 결과, 높은 가격 경쟁력 및 품질을 보유한 것으로 인식되며, 최근 캐나다에서 동부문과 관련된 선박 발주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한국업체가 수주를 한바 있음

○ 경쟁국 대비 비교

- 일본은 고부가가치선인 LNG/LPG 운반선 및 FPSO(부유식 원유 생산저장설비)/특수선에서 한국보다 기술력이 다소 앞선 것으로 평가되며, 중국과는 상당한 기술력 차이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캐나다의 선박 수입 현황】

(단위 : US천달러)

국가명	2000	2001	2002	2003	2004
한국	347,071	--	--	2,366	225,501
싱가포르	--	--	--	--	163,640
중국	2,548	1,409	3,665	2,998	22,805
덴마크	--	2.2	22,744	15,649	15,363
미국	8,080	399,043	7,156	10,530	13,577
영국	60,605	71,776	6.9	160,954	96
일본	4,547	3.2	8.3	2	2.4
노르웨이	17,274	--	45,066	13,032	1.6
총수입	457,995	478,308	88,314	305,675	442,024

자료원 : 캐나다 통계청, NAICs 336611 기준

참고 : 선박의 특성상 교체시기에 따라 수입규모가 달라짐

○ 한-캐 FTA 체결시 영향 예상

- 캐나다는 선박부분은 레저용 보트, 구명보트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한국선박에 대하여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해 15%-25%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현재 NAFTA 회원국인 미국과 멕시코 등으로부터 선박 수입시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FTA 체결시 자국 조선업계의 피해를 감안하여 어느 정도의 조정이 예상되지만, 경쟁국 대비 상당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됨

5) 타이어

○ 현지인지도

- 현지 국내법인에 의하면, 한국산 타이어에 대한 전반적인 캐나다인들의 인식은 가격대비 안정성과 품질이 높은 타이어로 운전자들이 믿고 고를 수 있는 타이어로 꼽고 있음

- 특히, 일반인에 대한 인지도와 관련하여 최근 한국의 H사가 2004년 말부터 캐나다 제1의 대형유통매장인 Canadian Tire에 타이어를 직접 납품하기 시작하였고, K사는 캐나다 2위 업체인 OK Tire와 거래하고 있어 일반인들이 한국산 타이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졌음

○ 가격 및 품질에 대한 인식도

- 예전부터 고품질로 지속적인 호평을 받고 있는 유럽산이나 일본산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가격에, 처음부터 저품질 저가를 앞세운 중국산에 비해서는 30% 정도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으며, 가격 대비 고품질의 타이어로서 인식이 자리 잡아가고 있음

○ 경쟁국 대비 비교

- 주로 경쟁국가로는 일본과 유럽을 들 수 있으며, 동 국가들의 제품에 비하여 약 20% 정도의 가격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저가 중국산의 경우 보편적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낮아 한국산 제품과 경쟁으로 보는 경우가 매우 드뭄
- 그러나, 최근 원가절감을 통한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바이어들의 저가제품 선호 성향으로 인해 중국산 타이어의 수입이 매년 두자리수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한국산 타이어 수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타이어 제품의 경우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안전성이 최우선시 되는 품목이기 때문에 캐나다의 운전자들이 중국산 제품이 비록 한국산 제품에 비해 저렴하다고 해도 선뜻 구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캐나다 타이어 수입현황】

(단위 : US천달러)

국가명	2000	2001	2002	2003	2004
미국	1,075,850	1,018,464	1,082,451	1,044,524	1,185,385
일본	125,317	103,728	121,970	144,007	170,175
한국	59,395	60,883	65,539	74,451	86,066
중국	20,800	23,442	29,794	39,135	62,273
포르투갈	57	28	103	1,514	29,157
멕시코	5,412	3,952	3,042	9,227	25,837
프랑스	26,842	22,487	22,735	23,369	25,142
스페인	27,907	19,867	24,569	19,697	25,032
대만	11,126	10,710	13,522	20,136	23,120
영국	30,682	18,206	14,924	18,447	22,727
총 수입	1,459,490	1,364,414	1,462,160	1,485,716	1,780,870

자료원 : 캐나다 통계청, NAICs 32621 기준

○ 한-캐 FTA 체결시 영향 예상

- 현재 한국산 타이어에는 7%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나 이미 고가/중가/저가 제품시장이 뚜렷이 구분되어 있어 전체적인 매출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나 저가제품 시장의 경우 변화가 있을 수 있음
- 현지 한국법인에 따르면 한국산 제품의 경우 생산단가보다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향후 수요가 크게 증가하거나 감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 주요 자동차 메이커들의 신규모델 출시 및 차량교체 시기 도래에 따른 타이어 시장의 전반적인 활황이 예상돼 향후 수출 전망은 밝은 편으로 보고 있음

6) 아연도 강판

○ 현지인지도

- 현재 캐나다 내에서 한국산 아연도 강판은 일반용(범용)이 아닌 자동차용 강판으로 주로 판매되고 있으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고객사의 인지도 및 반응은 매우 좋은 편임

○ 가격 및 품질에 대한 인식도

- 한국산 제품의 가격은 시장가격 이상으로 현지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산 제품의 품질에 대한 인식은 매우 좋은 편임

○ 경쟁국 대비 비교

- 경쟁국인 일본의 경우 현재는 캐나다에 거의 수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국산 제품의 경우 자동차용 고급강 또는 전자제품 외장용 고급강 중심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주로 일반용(범용) 제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중국 및 인도산 제품과는 경쟁을 하고 있지 않음

【아연도 강판의 캐나다 수입현황】

(단위 : US천달러)

국가명	2000	2001	2002	2003	2004
미국	65,170,752	31,238,257	23,615,879	16,815,920	29,236,222
재수입 (Canada)	--	4,086	9,672	1,274	727,977
한국	50,526	748,652	182,036	37,460	689,697
벨기에	123,394	--	139,878	634,650	582,776
독일	3,531,344	2,457,166	4,357,232	4,260,470	333,667
인도	11,884	--	--	--	270,492
멕시코	261,717	336,254	13,535	--	258,223
프랑스	--	--	--	5,938	5,194
인도네시아	38,833	--	--	8,153	2,626
일본	7,153,707	4,670,443	2,684,545	2,072,747	--
총수입	76,771,017	40,295,140	31,211,841	24,124,361	32,106,876

자료원 : 캐나다 통계청, HS Code : 721030 기준

○ 한-캐 FTA 체결시 영향 예상

- 한국산 제품의 캐나다 수출에 있어 관세는 크게 문제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시장상황, 시장수요, 원거리 등으로 인한 물류비용 증가 등이 판매제약 요인이 되어 왔으며, 특히 아연도 강판의 경우 전량 자동차용 판매로 반덤핑(Anti-Dumping) 마진적용에서 제외되어 왔음
- FTA체결이 될 경우 당장 수출에 있어 큰 변화는 없겠지만 긍정적으로 보여 지며, 반덤핑 문제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향후 타제품의 판매확대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

7) 칼라TV

○ 현지인지도

- 칼라TV(LCDTV, HDTV 포함)의 경우, 삼성과 LG 같은 대기업 제품의 경우 폭넓은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고가품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제품의 경우 주로 저가품 시장에 주력하고 있음
- 특히 중소기업 제품의 경우 삼성과 LG 등 대기업제품에 비해 잘 알려진 편은 아니나 가격 대비 우수한 성능으로서의 이미지 향상에 힘입어 브랜드 이미지가 점점 향상되고 있음

○ 가격 및 품질에 대한 인식도

- 한국산 칼라TV는 크게 고가의 High-End 제품이나 저가의 Entry Level 제품으로 크게 나뉘며, 삼성, LG와 같이 캐나다내 인지도가 높은 기업의 경우 뛰어난 기술력과 브랜드 로열티를 기반으로 주로 고가가격 정책을 고수, 경쟁국가의 제품에 비하여 동급 또는 다소 고가로 가격이 책정하고 있으며, 브랜드 인지도가 다소

낮은 중소기업의 경우 브랜드 인지도 부재를 가격인하로 보완하고 있으나 대만, 중국 등 저가산과 경쟁으로 인해 신규시장 진입에 다소 어려운 실정임

○ 경쟁국 대비 비교

- 한국산 브랜드제품 : 한국산 TV(주로 HDTV 등 고가형TV)는 일본에 비해 캐나다시장 진출역사가 짧고 판매모델의 수도 적다는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호평을 받고 있으며, 재생기능, 음질, 사용용이성 등에 있어서는 일본제품과 비교 결코 뒤지지 않으나 일부 화질부분에 있어서는 일본제품에 비해 성능이 뒤떨어진다는 평을 받고 있음
- 한국산 중소기업 제품 : 보편적으로 저가산으로 알려진 중국산 TV(주로 LCD TV)의 경우도 패넬을 한국 및 대만기업으로 수입하고 있어 가격에 큰 차이가 없으나, 경쟁국의 경우 대부분 B급 패넬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 실제 가격 면에서는 한국산 대비 차이가 있어 저가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음

○ 한-캐 FTA 체결시 영향 예상

- 캐나다의 경우 전자제품 제조산업 기반이 미비하여 보호산업층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한국산 제품이 무관세 혜택을 받을 시 저가 제품 중심으로 수입량이 눈에 띄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 특히, TV의 3% 관세 공제는 주로 다량공급을 하는 전제품 업체들에게 수입선 전환을 고려할 수도 있게 하는 한 요인일 수 있음
- 캐나다 바이어의 경우 기존 거래선과 장기간 거래를 통하여 신용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또한 A/S체계 등 기존 판매시스템이 잘 구축되어있어 FTA 등과 같은 특별한 메리트가 없으면 공급선 전환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임

8) 철강관

○ 현지인지도

- 오일 및 가스부문에 사용되는 철강관의 경우 일본산과 한국산의 인지도가 높은 편이며, 최근 한국산 철강관(탄소강관)의 반덤핑 철회로 인지도면에서 호조를 보이고 있음

○ 가격 및 품질에 대한 인식도

- 한국산은 가격 대비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인식

○ 경쟁국 대비 비교

- 한국산 제품의 경우 일본산이나 미국산에 비해 인지도 및 품질은 다소 떨어지나 상위등급 제품에 속하며, 중국산은 가격은 저렴한 편이나 품질은 한국산에 못 미침
- 최근 중국산 제품의 상승세에 따라 향후 중국산 제품이 한국산 제품이 한국산과 가장 큰 경쟁상대가 될 것으로 예상

【캐나다 철강관 수입현황】

(단위 : US천달러)

국명	2000	2001	2002	2003	2004
미국	846,633	786,174	680,863	790,791	1,055,998
중국	34,997	37,653	49,289	74,721	155,886
아르헨티나	41,535	31,051	26,394	56,874	54,339
일본	82,479	82,128	64,288	57,421	52,803
멕시코	47,032	43,447	41,608	40,957	46,980
이태리	29,171	37,852	37,464	39,460	42,988
독일	39,549	39,757	37,107	44,247	42,848
한국	20,283	21,459	21,621	32,755	38,036
대만	14,697	14,524	18,806	22,486	35,105
프랑스	20,498	25,193	24,890	26,800	31,967
총수입	1,296,475	1,223,909	1,111,504	1,327,785	1,733,63

* 자료원 : 캐나다 통계청, HS Code : 7304. 7305, 7306, 7307 기준

○ 한-캐 FTA 체결시 영향 예상

- 한국산 철강관에 대한 캐나다 관세율은 0%-4.5%로 여타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어서 FTA체결이 수출물량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철강관 제품은 관세율보다 수입규제(Anti-Dumping) 여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으며, 최근 캐나다 정부의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완화되는 추세이며 최근 활발하게 진행 중인 에너지자원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수송용 파이프라인 건설에 필요한 철강관의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예상
 - 최근 저가의 중국산 제품에 대하여 반덤핑 규제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 품질 면에서 우위인 한국산 제품의 수출물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 2005년 들어 캐나다는 5개의 한국산 철강제품 중 철근(1.11), 스테인레스 봉강(1.18), 탄소강관(6.3)에 대하여 수입규제를 철회한 바 있으나, 스테인레스 강선(181%), 구조용 강관(89%)에 대하여는 여전히 수입규제하고 있음

□ 주재국 주요 바이어 동향

바이어명 (기업명)	취급품목 (對韓수입품목)	의견	기타
S사	컨테이너선	-주로 한국 업체로부터 컨테이너 선박 및 관련 부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연평균 1300만불 수준의 무역거래가 이루어짐 -FTA체결시 관세공제 또는 절감으로 인한 수입비용 절감효과에 대한 기대가 크며 이는 추가 발주 등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바이어명 (기업명)	취급품목 (對韓수입품목)	의견	기타
P사	자동차부품	-한국으로부터 연150만불 정도의 배터리 (소량) 및 RV, 골프전동차, 어선, 요트 등에 소요되는 배터리 등을 수입하고 있으며, FTA 체결 시 수입비용 절감에 따라 20%정도 수입물량을 늘릴 계획임	
M사	도어 관련 제품	-한국으로부터 도어 관련 제품을 연2천만불 정도 수입하고 있으며, 동사의 주요수입대상국으로는 중국과 한국을 들 수 있으며 한국거래처의 경우가 상호 신용구축이 용이하여 선호함 - FTA체결시 10%정도 수입물량을 늘릴 계획이며, 아울러 한국에 대한 투자도 고려 중임	
N사	철강관	-한국에서 연간 4-5천만달러 수준의 철강관을 수입하고 있음 -최근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완화되고 있고 또한 중국산 철강관에 대해 반덤핑 규제 움직임이 있어 향후 FTA 체결이 될 경우 한국산 철강관 수입 물량을 늘릴 계획임	
M사	산업용 밸브 도매	-현재 동사가 취급하는 품목은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기 때문에 FTA 체결이 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하지만 FTA 체결시 산업용 밸브 외에 기타 다른 제품을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을 검토 중임	

바이어명 (기업명)	취급품목 (對韓수입품목)	의견	기타
C사	상업용 인쇄종이	-한국산 제품은 가격대비 높은 품질을 구비하고 있으며, 품질이 중요한 요소인 제품의 특성상 저가의 중국산보다 한국산 제품을 선호함 -현재 취급제품이 무관세인 관세로 FTA 체결이 수입물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그러나 FTA체결로 인해 수입비용이 절감될 경우 10%정도의 수입물량을 늘릴 계획이며, 아울러 캐나다를 물류센터로 이용 미국시장을 진출할 계획임	
C사	콘크리트 펌프	-한국산 콘크리트 펌프카를 수입하는 이 업체는 연평균 미화 1500만불 수준의 콘크리트 펌프카를 수입하여 북미 전역으로 공급하고 있음 -전세계 10대 콘크리트 펌프 제조업체중 4개사가 한국 기업일만큼 한국산 콘크리트 펌프카의 인지도는 매우 높으며, 한-캐 FTA체결로 인해 수입비용 절감될 경우 10-15% 정도 수입물량을 늘릴 계획임	

바이어명 (기업명)	취급품목 (對韓수입품목)	의견	기타
Q사	섬유기계	-한국산 섬유기계를 다년간 수입 제조시설에 접목한 경험이 있음 -한국산 제품은 가격대비 높은 성능이 좋으며 고장률 또한 낮 은 편이나 아직까지 미국, 독일, 일본 제품에 비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동 업체의 경우 개인적으로는 일본산 제품을 선호하나 FTA체 결로 인해 한국산 제품이 가격 경쟁력이 상승은 향후 기계 구 매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힘 - 단, 섬유쿼터 자유화의 영향으 로 중국 등 저가제품 비해 캐나 다 섬유제품의 경쟁력이 상실해 가고 있어 시장 확대에는 한계 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캐나다의 비관세 장벽 현황 및 피해사례

□ 비관세 장벽 현황 및 특징

○ 반덤핑 및 상계관세

- 캐나다는 특별 수입규제조치법(SIMA;Special Import Measure Act)에 의해 외국의 덤핑수출이나 보조금에 대해 상계관세, 잠정관세 등 반덤핑 관세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음.

- 국세청에서 덤핑조사 실시 후 90일 이내 예비 판정을 내리며, 예비 판정결과에 대하여 수출국의 가격인상 약속이 있을 경우에는 수사가 종결되나, 그렇지 않으면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에서 조사 후에 최종 판정을 내리게 되며 이 경우 자국의 피해가 인정되면 덤핑관세 부과함

- 한국제품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용 강관(HS Code: 7306.30.10 등), 스테인레스 강선(7223.00) 두개 부문의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있음.

* 2005년 들어 캐나다의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그 결과 2005년초 5개였던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철근은 1.11일자, 스테인레스 봉강은 1.18일자, 탄소강관은 6.3일자로 수입규제를 철회하여 2005년 10월 현재 스테인레스 강선(181%), 구조용 강관(89%)에 대해서만 수입규제하고 있음

○ NAFTA의 Local Contents 원산지 규정

- 캐나다는 NAFTA 체결을 통해 역내산 제품으로 인정될 경우 무관세, 통관절차 간소화 등 각종 혜택을 주고 있어 이는 한국제품의 수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참고로, 일반원칙에 의해 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품은 다음과 같음

- 1) 역내국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전적으로 생산 또는 취득된 제품(예 : 광산물, 수산물, 살아있는 동물)
- 2) 1국 또는 그 이상의 역내국산 재료로만 생산된 최종제품
- 3) 역내국제품에 비원산, 즉 역외국의 물품이 부가될 때에는 부가된 역외국 물품이 물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변화되어 본 협정 401조 부칙 (Annex 401.1)에 규정되어 있는 세번변경이 역내국에서 이루어져야 함.
- 4) 수입반제품과 그 수입반제품으로 가공된 완제품이 관세율표상 (HS세번상) 다른 상품으로 분류되지 않을 때에는 다음 두가지 방식 중 하나를 충족시키는 제품

가) 제품의 현지 부품사용이 거래가격 (transaction value)의 60%이상이거나

나) 제품의 현지 부품사용이 순비용(net cost)의 50%이상일 경우
(예 : 전자기기, 기계, 비행기, 선박과 이에 해당하는 부분품 등)

단, 예외적으로 자동차 제품에는 현지 조달율이 보다 높은 산정방식도 순비용 방식만을 인정함 (자동차 완제품, 엔진, 트랜스미션, 경트럭은 62.5%, 자동차부품은 60%)

- 5) 특정제품의 경우 특정 부품을 북미산으로 사용할 것
(예 : TV, 섬유 등)

○ 수입쿼터(수량제한) 운영 품목

- 캐나다는 WTO 협약에 의해 각국에서 수입되는 농축산물에 대하여 쿼터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동 제도에 따라 캐나다 농축산물 수입업자는 수입허가를 득한

후 동 제품을 수입할 수 있음

* 첨부1 : 수입쿼터 리스트 참조

○ 수입허가제도

- 현재 캐나다에서는 Import Control List(수입관리 리스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리스트에 속하는 제품들의 대부분이 Import Permit(수입허가)을 취득해야 함

* 첨부2: 수입관리 목록 참조

○ AMPS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통관절차 강화

- 캐나다 관세청(CBSA :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은 2001년 11월부터 APMS(Administrative Monetary Penalty System)라는 프로그램을 시범 도입하였으며, 이후 약 1년여 기간에 걸친 수정과 보완을 통해 2002년 10월에 프로그램을 최종 확정하여 현재까지도 지속 운영 중에 있음
- 동 프로그램은 해외로부터 제품수입시 통관서류의 정확성 제고를 통해 통관절차를 강화하는 동시에 원활한 통관업무를 도모하는 것이 주 목적으로서, 통관서류상의 하자 발생시 이에 대한 제재를 통한 재발방지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 AMPS 프로그램과 관계되는 법령 및 규정은 캐나다 관세법(Customs Act), 캐나다 관세율(Customs Tariff), 특별수입품목기준법(The Special Import Measurement Act)이며, 통관서류 미제출에서부터 서류상의 HS Code, 원산지, 제품설명 등을 잘못 기입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사례에 따라 경고, 벌금(최고 C\$ 25,000), 압수, 고발 조치가 내려지고 통관절차상의 각종 편의 혜택도 박탈됨

○ 까다로운 각종 인증 및 규격

- 인증 : 캐나다 전역에서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된 모든 가전제품은 캐나다 전기안전조항(Canadian Electrical Code)에 따라 공인된 기관에서 발급한 안전 인증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캐나다 표준청(SCC : Standards Council of Canada)은 첨부와 같이 약 6개 공인 검사기관을 지정, 이들로 하여금 유료로 가전제품의 안전성 검사 및 인증 발급 업무를 시행토록 하고 있음.

* 첨부3 : 6개 공인 검사기관 참조

* 첨부4 : 인증 취득 관련 문제점

- CRN 등록: 고압저장설비(Pressure Vessel)에 소요되는 각종 밸브류 및 플랜지 등에 대하여 캐나다 각 주정부에 모두 별도로 제품을 등록해야 하며, 이로 인해 한국산의 대캐나다 전역으로의 판매에 애로가 있음.

- 포장규격 및 라벨링

: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제품에는 반드시 영어 및 프랑스어로 상품명, 중량, Dealer의 주소 등 기록된 라벨링을 지정된 위치에 부착하여야 하며, 공산품의 경우 수입업체 또는 해외 제조업체 명의 표시 방법이 별도로 정해져 있음. 또한 판매되는 제품이 소비자용인지 또는 중간도매상용인지에 따라 상이한 포장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퀘벡주의 경우 라벨링 외에 광고, 상품성분, 사용방법 등에 대해서 반드시 프랑스어로 표시토록 하고 있음

: 포장규격과 관련하여 '소비자 포장 및 라벨링법', '캐나다 농산물 및 식품법', '식품 및 의약품법', '동물 질병 및 보호법' 등으로 규제하고 있음

○ 환경 관련 각종 규제

- 환경오염 규제(Canada Environment Protection Act: CEPA)

: 캐나다는 산업폐기물 최소화를 통한 환경 보호와 인체에 해로운 독성물질을 규제하기 위하여 1999년에 통합 환경오염규제법령인 CEPA를 제정,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인체에 위험한 산업폐기물의 무허가 수입, 폐기처리, DDT, CFC, PCB등, 환경오염 및 오존층 파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생산, 가솔린 및 디젤 연료 등에 포함된 벤젠, 납 및 유황의 적정수치, 자동차 및 각종 운송수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의약, 의료품의 판매 등이 주요 규제 대상임

: 미이행시 1일 최대 C\$ 1백만불까지의 벌금 혹은 3년 미만의 징역, 환경 파손에 대한 추징금 부과하고 있음

참조 : http://www.ec.gc.ca/CEPARRegistry/the_act/Download/CEPA_Full_EN.pdf

- 에너지 효율성 규제(Energy Efficiency Act)

: 캐나다는 전기, 석유 등의 에너지 사용 최소화 및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미국의 Energy Guide, EnergyStar와 유사한 라벨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전자기기, 가전제품, 냉난방기기의 에너지 효율성 기준 제시 및 대상 품목의 에너지 효율성 라벨 의무 부착 및 최소 에너지 효율성 기준 명시토록 함

참조 : <http://oee.nrcan.gc.ca/regulations/guide.cfm?PrintView=N&Text=N>

: 캐나다 관세청(CRA)은 상기 품목들이 캐나다에 수입될 경우 에너지 효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인증이나 보고서를 제출토록 의무화 하고 있으며,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캐나다 AMPS(Administrative Monitoring Penalty System)에 따라 벌금을 부과함(첫번째 적발시에는 C\$ 100, 재적발시는 C\$ 500, 세번째 적발시에는 C\$ 500을 부과)

: 무작위 검사를 통해 에너지 효율성 보고서의 기준에 미흡한 제품에 대해서는 C\$ 10,000 이하의 벌금 혹은 압수 가능하며, 라벨 미부착 판매시 최대 C\$ 200,000 벌금 부과 가능

참조 : <http://laws.justice.gc.ca/en/E-6.4/text.html>

- 대체연료 사용권장 관련 규제(Alternative Fuels Act)

: 정부의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촉진수법을 통해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 유발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승용차, 버스, 밴, 트럭(중장비 제외) 등의 에너지를 전기, 디젤, 가스 등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효율성 증대 및 환경 보호를 위한 법령을 마련 1997년부터 시행

참조 : <http://laws.justice.gc.ca/en/A-10.7/1474.html>

○ 주마다 다른 정부조달 정책

- WTO의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은 연방정부차원에서만 적용되고 있으며, 지방차원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캐나다 연방정부는 각 주간의 무역장벽 및 상이한 기준을 통합하기 위하여 주정부간 '주간(州間) 교역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나, 실제로는 여전히 각 주간에 무역장벽이 상존하고 있음

○ 수입주류에 대한 소매가격 통제

- 캐나다 지방주류 위원회는 주류의 소매가격 결정, 유통, 배분에 대해 독점적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어 수입주류에 불리하게 작용

* 우리기업의 투자진출에 대한 장벽은 동 조사에서 제외함

□ 비관세장벽 관련 피해사례 및 개선 요구사항

기업명 (익명가능)	비관세장벽 유형	피해사례 및 개선 요구사항	기타
P사	불필요한 등록 절차	-고압저장설비에 소요되는 각종 밸브류에 대하여 CRN 등록해 야 하는데, 캐나다 10개주에 각 각 등록해야 하므로, 이에 따른 비용과 시간 낭비가 큼 -통일된 CRN 등록절차 마련	

기업명 (익명가능)	비관세장벽 유형	피해사례 및 개선 요구사항	기타
N사	반덤핑	-지난 20여년간 한국으로부터 강관제품을 수입하고 있음. 2003년도 한국산 강관제품에 대한 반덤핑 판결로 인해 일부제품에 대한 수입이 중단된바 있음 -캐나다 무역위원회는 예비조사를 통해 한국외 3개국을 반덤핑 제조국으로 지목하였으나 이중 한국만 제대로 대비하지 않음으로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됨 -반덤핑에 대한 사전준비 강화	
B사	정부조달	-캐나다의 하수처리 시설의 경우 주로 해당 시 또는 주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시 또는 주마다 요구하는 Spec이 상이함 -또한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해당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입찰사이트를 통해 구매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 경우 해외업체들의 입찰응시가 가능하지만 납기일이 짧아 해외업체가 직접공급 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실제로 납기일을 맞추지 못해 선적된 제품을 반환하고 시에서 청구한 손실액을 배상한 경험 있음 -정부조달 정책의 통일 및 실질적인 해외기업의 응찰기회 부여	

기업명 (익명가능)	비관세장벽 유형	피해사례 및 개선 요구사항	기타
P사	FTA미체결	-미국과 캐나다간 NAFTA 체결 전까지는 연간 약 100컨테이너 분량의 타이어를 수입하여 전체 캐나다 시장의 5% 정도까지도 점유한 바 있었으나 NAFTA체결이후 수입물량이 종전의 20% 수준으로 급감하는 피해를 입었으며 지금은 취급품목을 달리하고 있음 -한-캐나다 FTA 조기체결	
V사	검역 및 통관지연	-과일류에 대한 병충 검출을 위한 확인 작업이 통관보류상태에서 장기간 소요됨으로 인해 신선도 감소 및 제3국 수출 또는 반송의 어려움으로 피해를 입은 바 있음 -2002년 한국산 배를 수입하였으나 검역을 통과하지 못하고 2차에 걸쳐 반송 조치된 바 있음 -검역 및 통관절차 간소화	
D사	주류통제	-캐나다 지방주류위원회가 주류에 대하여 독점통제권을 행사함으로써 유통, 배분 등에 있어 수입산 주류 대비 자국산 주류가 우대받음	

III. 시사점

□ 협상에의 시사점

- 한국은 캐나다와의 FTA 체결은 對캐나다 주요 수출품목의 시장 및 경쟁 여건에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북미시장에서 중국과 멕시코와 경쟁하고 있는 가격쟁쟁 위주의 저가의 중소기업 품목의 경우 수출 판로 확대의 주요 수혜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특히 품질에서는 우수하나 중국과 가격경쟁을 하고 있는 일부 품목(자동차 부품, 철강, 산업용 인쇄종이 등)의 경우 캐나다 바이어들이 수입선을 한국산을 전환하거나 수입물량을 증대할 것으로 예상됨
- 캐나다 정부는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지나친 대미 의존도를 탈피하고 천연자원 수출에 치중한 수출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 FTA 정책 추진
 -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연평균 수입증가율은 전체 연평균 수입증가율을 2~5배 이상 상회하고 있음
 - 한국과 FTA 체결시 캐나다의 對한국 서비스 부문의 투자 진출 확대 기대
 - 동북아지역으로의 진출 확대를 위한 전략적 교두보로서의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협상에 임하는 것이 필요
- 한국의 對캐나다 주력 수출품목의 대부분은 무관세 혹은 비교적 낮은 관세율을 적용 받고 있어 수출 제조업의 입장에서는 생산단가 보다는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

- 단, 품목과 시장을 세분화하여 여전히 가격이 중요한 의사 결정 기준을 차지하고 있는 품목의 관세 인하가 협상의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
- 비관세장벽과 관련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 필요
 - 한-카 FTA 체결과 관련하여 양국간의 교역에 대한 무관세화 외에도 비관세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이 캐나다 수출시 실제 겪고 있는 각종 비관세장벽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개선요청이 향후 한-캐나다 FTA 협상을 함에 있어 무역장벽을 줄이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됨
 - 동 조사에서는 통일된 CRN(Canadian Registration Number) 등의 부재, 주마다 다른 정부조달 정책, 환경관련 기술 장벽, 검역 및 통관절차의 강화 및 지연 등에 따른 피해 사례를 협상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필요
- 높은 캐나다의 서비스 산업 비중에 비추어 보아, 한-캐나다 FTA를 통한 제조업 수출 확대 및 다변화는 물론 선진 서비스 시장과의 교역 확대를 통한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협상 타결의 관건이 될 전망
 - 한-캐나다 FTA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협상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

<첨부1>

캐나다 수입쿼터 현황

품목(분야)	내용	비고
칠면조	- 쿼터 : 5,588,000kg(전년과 동일) - 책정 방식 : WTO 협약에 의해 수량을 결정 하거나 전년대비 약 3.5%증가된 수량을 책정 - 해당 HS 코드 (0105991100, 0207241100, 0207249100, 0207251100, 0207259100, 0207261000, 0207261001, 0207261002, 0207271100, 0207279100, 0207279101, 0207279102, 0209002300, 0209002300, 0210901400, 0210901401, 0210901401, 0210901402, 1601003100, 1602203100, 1602311200, 1602319300, 1602319301, 1602319302)	
닭고기	- 쿼터 : 69,697,500kg(전년과 동일) - 책정 방식 : WTO 협약에 의해 수량을 결정 하거나 전년대비 약 7.5%증가된 수량을 책정 - 해당 HS 코드 (0105929100, 0207119100, 0207129100, 0207139100, 0207139101, 0207139102, 0207142100, 0207149100, 0207149101, 0207149102, 0209002100, 0210991100, 1601002100, 1602321200, 1602329300, 1602329301, 1602329402)	
계란	- 쿼터 : 14,410,961 DZN(전년과 동일) - 책정 방식 : WTO 협약에 의해 수량을 결정 하거나 전년대비 약 2.988%증가된 수량을 책정 - 해당 HS 코드 (0407001822, 0407001800, 0407001820, 0407001821, 0407001890)	
계란 제품	- 쿼터 : 2,621,846 kg(전년과 동일) - 책정 방식 : WTO 협약에 의해 수량을 결정 하거나 전년대비 약 2.988%증가된 수량을 책정 - 해당 HS 코드 (0408111000, 0408911000, 3502111000, 0408191000, 0408991000, 2106905100, 3502191000)	
병아리	- 쿼터 : 140,396,595마리(전년과 동일) - 책정 방식 : WTO 협약에 의해 수량을 결정 하거나 전년대비 약 21.1%증가된 수량을 책정 - 해당 HS 코드 (0407001100, 0105112100)	

품목(분야)	내용	비고
소고기 및 송아지	- 킬터 : 76,409,000kg(전년과 동일) - 책정 방식 : WTO 협약에 의해 수량을 결정 - 해당 HS 코드 (0201101000, 0201201000, 0201301000, 0202101000, 0202201000, 0202301000)	
마가린	- 킬터 : 7,558,000kg(전년과 동일) - WTO 협약에 의해 수량 결정 - 해당 HS코드 (1517101000, 1517902100)	
버터	- 킬터 : 7,558,000kg(전년과 동일) - WTO 협약에 의해 수량 결정 - 해당 HS코드 (0405101000, 0405201000, 0405901000)	
치즈	- 킬터 : 20,411,866kg(전년과 동일) - WTO 협약에 의해 수량 결정 - 해당 HS코드 (0406101000, 0406201100, 0406209100, 0406301000, 0406401000, 0406901100, 0406902100, 0406903100, 0406904100, 0406905100, 0406906100, 0406907100, 0406908100, 0406909100, 0406909300, 0406909500, 0406909800)	
요거트	- 킬터 : 332,000kg(전년과 동일) - WTO 협약에 의해 수량 결정 - 해당 HS코드 : 0403101000	
아이스크림	- 킬터 : 484,000kg(전년과 동일) - WTO 협약에 의해 수량 결정 - 해당 HS코드 : 2105009100	
크림류	- 킬터 : 394,000kg(전년과 동일) - WTO 협약에 의해 수량 결정 - 해당 HS코드 : 0401301000	
고지방유	- 킬터 : 11,700kg(전년과 동일) - WTO 협약에 의해 수량 결정 - 해당 HS코드 : 0402911000, 0402991000	
유지분유	- 킬터 : 908,000kg(전년과 동일) - WTO 협약에 의해 수량 결정 - 해당 HS코드 : 0403901100	

품목(분야)	내용	비고
건조응유 (dry whey)	- 킬터 : 3,198,000kg(전년과 동일) - WTO 협약에 의해 수량 결정 - 해당 HS코드 : 0404102100	
기타 유제품	- 킬터 : 4,345,000kg(전년과 동일) - WTO 협약에 의해 수량 결정 - 해당 HS코드 : 0404901000	
기타 낙농제품	- 킬터 : 70,000kg(전년과 동일) - WTO 협약에 의해 수량 결정 - 해당 HS코드 : 0910903300, 0910905300	
밀	- 킬터 : 226,883ton(전년과 동일) - WTO 협약에 의해 수량 결정 - 해당 HS코드 (1001100110, 1001100190, 1008100810)	
보리	- 킬터 : 399,000ton(전년과 동일) - WTO 협약에 의해 수량 결정 - 해당 HS코드 (1003100300, 1003110411, 1003110421, 1003110710 1003110720)	
밀 제품	- 킬터 : 123,557ton(전년과 동일) - WTO 협약에 의해 수량 결정 - 해당 HS코드 (1101110100, 1102110311, 1102110319, 1103110320, 1102110321, 1102110329, 1102110419, 1102110811 1109110900, 1109120929, 1109151590, 1109190420 1109190430, 1109190490, 1109230230, 1109270111)	
보리 제품	- 킬터 : 19,131ton(전년과 동일) - WTO 협약에 의해 수량 결정 - 해당 HS코드 (1003190420, 1003190490, 1003230240)	

자료원 : 캐나다 수출입국(Export and Import Control Bureau)

관련 홈페이지 : <http://www.dfait.gc.ca/trade/eicb/agric/agric-en.asp>

<첨부2>

수입관리 목록(Import Control List)

품목(분야)	내용	비고 (리스트번호)
의류	폴리에스터 직물	22
	아크릴사가 50%이상의 직물	24
	순모 17% 이상의 직물	25
	한국, 폴란드, 태국, 대만, 루마니아산 나일론사	26
	한국산 폴리에스터사	27
	면화 50%이상의 타올 및 각종 목욕용품	29
	섬유 50% 이상의 장갑	31
	겨울용 외투(스키복, 자켓, 파카 등의 각종 겨울 의류)	32
	스타킹을 제외한 양말류	34
	섬유 50%이상의 바지, 청바지 등	37
	블라우스, 스커트 등	39
	섬유 50% 이상의 잠옷, 파자마	40
	섬유 50% 이상의 우의	41
	섬유 50% 이상의 운동복, 드레스, 스커트	42
	foundation garment	43
	수영복	44
	속옷	45
	섬유 50% 이상의 자켓, 코트	46
	섬유 50% 이상의 양복	47
	옷깃이 있는 남성복(성인, 청소년 불문)	49
	스웨터, 카디건	50
	면화 침대시트	51
	면화 배게	52
	여성용(성인, 청소년 불문) 신발(가죽제외)	57
	직물 핸드백(코팅여부 불문)	58
	한국, 대만산 나일론사	60
	골덴사 이외의 면화제품	61
	여성용(성인, 청소년 불문) 가죽 신발	67
군용품	총기부품 및 총기류(라이플, 카빈, 리볼버, 피스톨, 자동소총 등)	70
	대량 살상무기(총, 유탄포, 캐논, 박격포, 탱크지뢰, 군용연막, 가스 및 화공품)	71
	탱크 및 자가추진력에 의한 각종 군용품	72
	폭탄, 어뢰, 로켓 및 비유도탄 및 해당 부품	73
	수출 관리품목(Export Control List)에 해당되는 군용품	74

품목(분야)	내용	비고 (리스트번호)
철강	탄소강 관련 제품(철판, 코일, 철도관련 제품, 기초골재, 파이프 형등)	80
	특수강(철판, 봉강, 파이프, 튜브, 코일, 합금, 주석 등)	81
의류제품	멕시코와 미국(NAFTA국가) 생산된 의류 및 기타 국가들에서 생산된 면화, 수제직물사 등	85 - 90
무기류	수입금지 무기류	91
기타	인공 핀라멘트 85% 이상 함유한 섬유질 아세테이트	93
낙농제품	암탉, 수탉(185g이상), 닭고기(냉동 여부 불문) 닭고기를 주 재료로한 각종 제품 등	94 - 104
	칠면조(185g이상), 칠면조 고기(냉동 여부 불문), 칠면조를 주 재료로한 각종 제품 등	105-113
	소, 송아지, 소고기 등(NAFTA국가 및 Chile산 제외)	114-116
	각종 유제품(우유, 크림, 유지분유, 버터)	117-132
	아이스크림(아이스크림 및 기타 성분 함유)	133-134
	계란 및 계란을 주 재료로한 각종 제품	135-139
	마가린	140
	치즈(체다, 블루 베인드, 카망베르, 브리, 브로볼롱, 구다, 모차렐라, 스위스, 그뤼에르, 하바티, 파마잔, 로마노 및 기타 각종 종류의 치즈)	141-157
기타제품	요거트	158
	버터 및 각종 유지방 제품	159-160
	통밀, 메슬린, 밀분 등	161-167
	파스타, 면 등	168-172
	밀을 주 재료로한 각종 제품(시리얼, 비스킷, 러스크, 쿠키, 프레첼 등)	172-181
	보리, 보리가루 등	182-188
	보리를 주 재료로한 각종 제품	189-192
기타제품	이스라엘산 장미	193
기타제품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태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 북아일랜드산 돼지고기	194

자료원 : 캐나다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Canada)

관련 홈페이지 : <http://laws.justice.gc.ca/en/E-19/C.R.C.-c.604/101227.html>

<첨부3>

<캐나다의 인증발급 기관>

연번	기관명	인증 마크	인지도	주요사항	홈페이지
1	Canadian Standard Association	CSA	상	- 캐나다에서 설립된 검사기관 - 캐나다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인증으로, 대부분의 가전제품이 CSA를 취득 - 검사비용 과다 및 장기간 소요 -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업무제휴를 맺고 CSA인증 발급을 위한 검사를 대행	www.csa-international.org
2	Underwriter's Laboratories of Canada	ULC	상	- 미국의 검사기관으로 캐나다 사무소 설치 - 캐나다에서는 두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인증 - CSA와 협약을 체결 UL인증을 기 취득한 제품의 경우 호환인증 취득 용이.	www.ulc.ca
3	Intertek	ITS	중	- 미국의 검사기관으로 캐나다 사무소 설치 - 바이어들의 CSA 선호로 인해 인지도가 낮으며, 관련인증 취득 미흡	www.entela.com www.intertek-etlsemko.com
4	Met Laboratories	MET	하	- 미국의 검사기관으로 캐나다 사무소는 없음 - 바이어들의 CSA 선호로 인해 인지도가 낮으며, 관련인증 취득 미흡	www.metlabs.com
5	Quality Auditing Institute	없음	하	- 캐나다의 검사기관으로 자체 인증은 발급하지 않음 - 동 기관의 검사결과를 토대로 CSA에서 인증을 발급	www.qai.org
6	TUV Rhineland	없음	하	- 독일의 검사기관으로 캐나다 사무소 설치 - 바이어들의 CSA 선호로 인해 인지도가 낮으며, 관련인증 취득 미흡	www.tuv.com

(자료원 : 캐나다 표준청)

<첨부4> 인증 취득 관련 문제점

1) 인증 미취득에 따른 판매지역 제한

- 캐나다 전역에서 가전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CSA와 같은 인증 취득이 필수이나,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 검사당국의 검사 승인을 얻어 판매가 가능함.

2) CSA, ULC 외에 기타 인증의 낮은 활용도

- 캐나다의 바이어들은 각종 인증 중에서도 CSA나 ULC(UL에서 캐나다에서도 판매가 가능토록 발급한 호환인증)를 가장 선호하고 있으며, 이를 제외한 인증에 대해서는 존재 여부조차 모르는 상황이며, 이미 기타 인증을 받은 제품들의 경우, 인증간에 호환성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바이어들이 원하는 인증을 다시 취득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초래

3) 과도한 검사비용 및 장기간의 검사기일

- 캐나다의 대표적인 인증인 CSA의 경우, 1개 전자제품에 대한 검사비용은 캐나다화로 약 2,000-20,000불에 달하고 있으며, 검사기일 역시 평균 6주에서 8주가 소요되며, 최장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음

4) 인증발급 기관의 한국사무소 부재

- 현재 UL은 한국사무소를 설치, 우리 기업들이 한국에서 직접 UL 취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CSA는 아직까지 한국사무소를 설치하고 있지 않음(대만, 일본에는 CSA 사무소가 설치되어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와 인증취득이 동시에 가능함)
- 다만 CSA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과 업무협약을 맺고 관련 서비스를 대행하고 있으나, 실제 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해당제품을 캐나다 검사소로 직접 보내야 하기 때문에 대만과 일본에 비해 더욱 높은 비용이 소요..